

제1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종강식 개회사

사랑하는 기후환경리더 제1기 대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수료하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반기문재단과 함께 이번 과정을 만들어오신 대자연의 이해경 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여 간 지속되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잠시 주춤해질 시기,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누군가는 기후환경을 훼손하는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양성과정을 통해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3개월을 보냈을까요?

되돌아보건데, 우리는 기후환경에 대해 정의로운 시간을 보냈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한 영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욱 빛나고 가슴 뿌듯하기만 합니다.

지금의 탄소배출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우리는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폭염으로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수많은 전자제품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2015년 9월,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예측했던 기후위기의 위력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파괴력은 매우 다름을 느낍니다.

기후위기는 매우 빠르게 가속화되어 기후재앙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존적 위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뉴스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역대급”, “기록적”이라는 단어들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극단적인 기후이변이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 우리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3실무그룹은 당장 행동해야 할 구체적인 시한을 30개월로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202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후위기 최악의 영향을 피할 기회를 영영 놓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오던 길로만 가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만 하자”라며 모두가 생각하는대로 따라만 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후환경 리더로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양성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을 생각에만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행동의 차이점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로 나누어집니다.

행동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고 위기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준비된 기후리더의 시간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시대의 전환은 사람의 사고 변화에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환경보다는 산업혁명을 중시했던 기성세대와 필(必)환경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의 사고는 귀납적으로 달라야하고, 보다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성세대의 움직임과 태도를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움직이시고 외치시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탄소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영특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한들 'Net-Zero'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There is no Plan B, Because there is no Planet B.)

여러분과 같은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의 책임이 전부 기성세대에 있다고 몰아붙여셔도 안됩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도 과거 직면했던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실용적이며 점진적인 돌파구를 찾고 변화를 추구하며 오늘을 개척해 왔습니다.

지금의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방관하면서 원망만 한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그 책임은 기성세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보다 안전하고 생태친화적으로 가꿀 권리, 그리고 의무 까지도 결국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나서서 바꿔 나아가기 바랍니다.

제1기 기후환경리더인 여러분들이 가장 용기있게 그리고 보다 큰 목소리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